

아나키스트도서관 (Korean)

아연주간뉴스단평 2021-01-04

아나키스트연대

아나키스트연대
아연주간뉴스단평 2021-01-04
2021 년 01 월 04 일

[https://blog.naver.com/anarchistleague/
222196481859](https://blog.naver.com/anarchistleague/222196481859)

kr.theanarchistlibrary.org

2021 년 01 월 04 일

차례

1. [정인아, 미안해]	3
2. [의미하등없는핑퐁]	4

1. [정인아, 미안해]

사상이나 이념, 신념을 막론하고 모두가 허탈할 일이었다. 모두가 분노할 일이었다. 피해자인 정인양에 대한 잔혹한 이야기를 다시 상기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큰 기력과 감정을 소모하게 되는 것이니 이는 뒤로 두기로 한다. 아마 정인양 역시 그 서사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을 바라지는 않을 것이라는 심치 않는다.

한 사람이, 너무도 적은 날을 이땅에서 우리와 함께 보내다 숨졌다.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지만 언제나 그렇듯 남은 이들은 남은 이들의 일을 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미처 몰랐던 곳에서 고통 받은 이들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이자 비슷한 처지의 이들을 구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많은 이들이 바라는 것과 같이, 우리는 정인양의 양부모가 모자람 없는 찢값을 치르기를 바라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들이 새로운 입법이라는 결론에는 동의하기가 어렵다. 정인양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세 차례의 아동학대의 심신고가 있었고, 이중 두 차례는 법으로 의무화된 제도에 따른 신고의무자들의 신고였다. 하지만 결국 이것들로 정인양의 죽음을 막을 수 없었다.

아동학대 신고는 해마다 늘어 2019 년 기준 4 만 건을 넘겼다. 그러나 이수치보다 더욱 절망스러운 것은, 전문가들에 의하면 아동학대 범죄자들에게는 공통점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데 데이터베이스 구축 자체가 오리무중이라는 이야기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억울한 죽음들에 어떻게 대처해야만 하는가?

답은 늘 어렵지 않다. 결국 상호부조와 공동육아의 확대가 그것이다. 그리고 이를 우리 스스로 실행할 직접 행동에 의용기다. 이는 법으로 강제한다고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다음 세상을 이어갈 이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그 마음으로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자발적인 사랑을 법으로 누군가에게 의무지울 때, 사람들은 사랑에서 멀어지고 움츠러든다. 혹여나 정해진 것을 어겨 내게 불이익이 돌아오지는 않을까 하는 그 망설임이 우리 주변의 다급한 목소리에 손길을 내밀기를 망설이게 한다.

우리 모두가 이번 정인양 사건에 분노하고 있다. 모두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억장이 무너지는 마음으로 뒤늦게 미안한 마음을 감출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주변의 다급함을 모른척하지 말자. 우리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는 목소리를 미처 못보고 지나치지 말자. 자신이 아프고 억울하다는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먼저 다가서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고 다시 끝없는 참회의 굴레를 뒤흔들고 휘둘러질 것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93/0000032716>

2. [의미하등없는핑퐁]

의회민주주의아래에서가장재미있는것은바로그스스로가지고있는‘삼권분립’체제가완전히분립되어있지않다는점이다. 여기대한민국에서그러한일이벌어지고있다. 무려박근혜와이명박전대통령들에대한사면론이불거지고있는것이다. 물론혹자는말할것이다. 대통령에게있는‘사면권’이란, 곧사법부를견제하기위한것이라고한다거나, 행정부수장으로서마땅히행사할수있는권한이라고한다거나. 그러나우리는의문을가진다. 대통령이애초에‘왜’존재해야하는것인지, 그리고대통령이대체‘왜’인민을가두고사면할권리를가지고있는것인지에대해서말이다.

우리아나키스트연대는소위말하는‘사면’과사면할대상이존재하는‘교도소’의존재, 그리고‘교도소’에인민을쳐넣을수있는권한이있는‘사법부’와‘경찰’의존재를부정한다. 왜? 그들은인민의그어떤동의도, 그어떤합의도없이자기들 멋대로인민을사로잡고감옥에쳐넣기때문이다. 수많은노동계급이그렇게희생되었고, 합법적권한행사라는명목아래에많은인민대중이권력에의해죽어나갔다. 그렇게해서나타나는변명은고작‘국민이건네준권력’이라는것이다.

국민이건네준권력이라고? 4 년에서 5 년에한번있는선거를통해선출되어 권력을행사하는그치들이하는모든일은인민의동의아래에서행해지는것인가? 파쇼의후예이자이를자랑스럽게떠벌리고다니던마녀, 부르주아민주주의를그누구보다도열렬히사용하며자본을굽어모으고노동자들을착취하던인간을인민이심판하지못하도록한것은누구인가? 그레놓고인민의압도적인불만에꼬리를내리고겨우요식행위로형식적절차를거쳐교도소에넣은뒤에, ‘통합’을위해사면권을행사하겠다는니. 웃기는일이다. 거기에동의하는정치집단들도마찬가지다. 결국그들은자신들의정치적이익과자본에복무하는것이지, 인민대중은안전에도없는것이다.

그모든정치집단, 그모든의회민주주의를추구하는집단은어떠한변화도만들어낼수없음이번사면과관련된거대정당들의핑퐁에서드러나고있다. 우리는진정한변혁을일궈내기위해서는, 그누구에게권력을건네주어그누군가가어떠한인민을사면해주거나벌하는것이아닌, 인민이직접힘을행사하여파쇼와부르주아를격멸할것을주장한다. 그것이바로직접행동이고, 그것이바로사회혁명이아니겠는가.

<https://www.yna.co.kr/view/AKR20210104077600001?input=1195m>